

■ 오페라창작산실 16-17 본공연(올해의신작) 지원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2017 오페라창작산실 본공연(올해의 신작)
- 회의일시 : 2017. 6. 9(금)
- 회의장소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각 작품에 대한 평가

1) 해무

이미 영화나 연극을 통해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 난민, 밀항 등을 소재로 오페라의 단골 소재인 역사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의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피 해갈 수 없는 시사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을 오페라로 시도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본이 명확하게 오페라 대본으로 거듭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연출의 의도가 분명치 못한 점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대본이나 연출적인 면의 아쉬움과 함께 음악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 가사의 적용에 있어서 못갓춘마디의 적용이 우리말의 음악성과 충돌하여 가사전달이 분명치 않은 현상이 많았다. 계면조적 진행이 많이 느껴졌지만 조성적 기능화성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한 변화 없는 음악적 진행이 단조로웠고, 주역들의 음역설정이 가수들의 성악적 역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어중간한 중간음역에 음색만 다소의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관현악의 음역들이 과도하게 노래의 음역과 중복되어 있어서 반주가 성악의 가사전달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즉 오페라의 관현악법에 대한 정확한 음악어법정리가 미비한 작품이었다.

2) 망각의 나라

가락국을 배경으로 한 내용으로 복잡한 내용을 연극이 아닌 오페라의 대본으로 단순화시켜 객석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줄기를 잡아주는데 실패한 면이 지적되었다. 작곡법의 오류로 음악을 통해 가사를 1/3도 파악할 수 없었던 점과 주인공 아란보다 황옥을 음악적으로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한 오류가 발생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연출의 면에서는 쇼케이스라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연출의 이상과 무대를 현대적 단순성에 맡기고 있어서 연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게 한 점 또한 아쉬웠다. 음악적인 면에 가사의 적용이 부족함이 느껴졌다. 근원적인 면에서 작곡가가 ‘말의 음악성’을 다시 연구할 것을 권한다. 세련되지 못한 조성음악의 언저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음악적 흐름이 대본이 추구하고 있는 현대적 감각과 큰 괴리를 안고 있어서 아쉬움이 컸다.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관현악이 성악까지 리드하는 음악적 흐름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언어의 음악성(가사의 전달)이 생명인 오페라에서 가사를 음악의 흐름에 맡기게 되는 오류가 나타난 작품이다. 이미 대본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유럽공연까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제작자의 포부가 재검토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권유를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전한다.

3) 반달설아

오페라의 작곡법이 잘 정돈된 작품으로, 가사의 음악적 적용이 원활하고 오페라라는 장르에 있어서 노래를 중심에 놓고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오페라적 음악어법이 확립되어 노랫말이 정확하게 들리는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에 있어서 설아가 반달이 되는 과정에서 극단적 비극과 상황의 변화에 대한 무대상황의 대비와 반전이 부족하였던 점과, 예산 대비 연출에 있어서, 3면 wall 무대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예산의 여러 항목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보였다.

음악적인 면에서, 관현악법과 세련된 조성음악적 화성진행과 가사의 적용 등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지만, 심사위원의 ‘수준 높은 뮤지컬’같다는 단적인 평가를 들었을 만큼 작곡가 입장에서 자신만의 소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음악의 안정성이 극단적 상황의 대비나 비극적 상황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아쉬움이 큰 작품이다.

4) 1953

오페라의 형식에 맞게 대본은 더 압축적이었고 새롭게 표현한 부분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극중극의 컨셉도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과거의 사건을 소재로 삼았지만, 주제가 현실적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었다. 하지만, 극중극 상황과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대본상의 분명한 정리가 더 필요한 작품이라는 지적이 심사과정에서 있었다. 이 부분은 음악적으로도 짧은 주제를 반복해가는 시스템 때문에 상황을 분리하여 표현하는데 한계성을 드러낸 점이 분명히 지적되었다. 각 인물의 상황에 따라 다른 주제를 처리하다 보니, 음악적인 면과 극의 흐름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출 부분에서 무대의 통일성 및 다양성과 극 진행상의 끊김 현상과 결과도출을 위한 상황의 전개와 대비의 분명한 정리가 요구되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으며, 충분한 수정과 보완을 거친다면,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작품이었다. 또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진취성을 엿볼 수 있었다.

● 심사과정 총정리와 결정에 대하여

각 작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심사위원 개별로 채점 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지원 결정하였다. ‘1953’은 관객평가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득하였다.

‘1953’이 높게 평가되었던 진취성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되,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더 예민한 검토와 수정을 통해서 ‘올해의 신작’이라는 사업취지에 걸 맞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